

# 김지훈

한양대학교 [예술체육대학 연극영화학과](#) 93학번 동문이자 영화감독이다.

연극영화과에 입학해 지난 98년 졸업했다. 같은 해 단편영화 「온실」로 영화계에 진출한 그는 지난 99년 「질주」, 2000년 「비밀」에서 각각 조감독을 맡았다.

이후 지난 2004년에 영화 「목포는 항구다」를 연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, 이 영화로 일본 ‘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’에서 대상을 수상했다.

지난 2007년, 그는 「화려한 휴가」를 만들어 전국 700만 관객을 끌어 모았다. 이 영화로 김 동문은 ‘제1회 대한민국영화연기대상 감독상’, ‘제27회 한국영화평론가협의회 최우수예술가상’, ‘제5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감독상’ 등을 수상하며 한국의 대표적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.

김 동문은 뉴스H와의 인터뷰에서 "영화 소재 대부분이 대학생 때의 고민을 통해 생각한 것"이라며 "문학적인 소양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"고 강조했다.

또한 "정말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시기가 대학생 때이니 친구와 서로 경쟁하면서 사귀면 삶에 큰 밑거름이 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## 감독

- 1998년 여고괴담 (연출부)
- 1999년 질주 (조감독)
- 2000년 비밀 (조연출)
- 2004년 목포는 항구다 (각본, 감독)
- 2007년 화려한 휴가 (감독, 단역)
- 2011년 7광구 (감독)
- 2012년 코리아 (제작)
- 2012년 타워 (각색, 감독)
- 2017년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(감독)
- 2020년 싱크홀 (감독)

## 수상 내역

- 2004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대상 (목포는 항구다)
- 2007 제3회 프리미어 라이징 스타 어워즈 감독상
- 2007 제1회 대한민국영화연기대상 감독상
- 2007 제27회 한국영화평론가협의회 최우수예술가상
- 2008 제5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최고의 감독상
- 2013 제22회 금계백화영화제 최우수외국감독상

## 교내 매체

- <뉴스H> 2008.12.15 대중 감성 연출가, 김지훈 감독